2014년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를 마치며

전무이사의 임기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하니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보람된 일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국고분자학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995년 귀국하여 진정일 교수님에게 이끌려 첫 발을 디딘 이래 학회장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진지한 학술 토론에 참여하며 고분자학회는 제 학술활동의 주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울러 이두성 교수님 등 여러분이 지휘하는 위원회들에서 많은 위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 학회를 위해 그리고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저와 비슷한 이유로 우리 학회를 찾고 서로 모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1년은 저의 이러한 믿음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정신과 육체 전부로 확인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전무이사 일을 맡겨주신 허수영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수영 회장님께서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사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학회를 위해 할애하며 재정적인 면뿐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2014년도 학회운영의 큰 방향으로서, 국제적 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도한 영어발표 세션의 확대, 스마트 시대에 걸 맞는 학술대회 App 개발, 산학연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학회, 회원들의 열띤 학술활동에 도움되는 양질의 회원서비스 제공, 그리고 2016년 학회창립 4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등 굵직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학회운영을 저에게 일임하시면서도 주요사안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신 덕에 전무이사로서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의 얼굴인 양대 학술지 즉, 폴리머와 Macromolecular Research를 발간하는 데 역량을 아끼지 않으신 강호종, 김은경 편집위원장님들과 편집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의 실질적 운영을 맡아 부지런하게 이끌어 오신 강영종, 정연식 부위원장들께 그리고 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학회가 공식 발간하는 학술지와 잡지가 차질 없이 훌륭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도록 새롭게 책임을 맡으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춘·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해서 회원들의 학술활동에 이바지하신 김철희 학술위원장님과 류두열 부위원장 및 학술위원들께, 그리고 각 세션 오거나이저와 좌장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학회장과 포스터 발표장에서 활발하게 참여하신 산학연관의 정회원님들과 특히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학생회원들을 목도하며 우리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향후 머지않은 미래에 아시아권역 대표 학회로 발돋움할 것을 꿈꿔 봅니다.

자문위원님들과 역대 전무이사님들의 도움 말씀과 여러 회원들께서 건네주신 의견들이 있어 2014년 학회운영이 더 나아졌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신 기업체 및 연구소 회원님들과 역대 부회장님들 그리고 학회상 수상자 여러분께도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끌었던 운영이사회의 위원 29인과 학회상주 이기옥 · 김보경 · 이여라 · 원미나 선생 4인을 포함한 33인께 크지 않은 제 체구지만 가장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년간 10회의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학회사무실을 가득 채우며 많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학회를 균형 있고 전향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전과 제주의 학회장과 총회장 그리고 고분자포럼 · 아카데미 · 기기분석 행사장의 구석구석과 인근지역을 샅샅이 그리고 시시각각 파악하며 무한책임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학회운영의 미숙함이 있었다면 오로지 제 불찰이라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세대의 환상적인 조화, 산학연의 융화, 국제적 인지도가 드높은 한국고분자학회를 바라며 올해 전무이사의 소회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학회 운영의 책임을 맡으신 김덕준 전무이사님과 운영이사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안동준〉